

## 부패 수준과 해외 송금의 상관성 연구

조 정 환\* · 김 태 황\*\*

### 논문초록

154개국을 대상으로 횡단면 자료(1996~2010년)를 이용하여 부패 수준이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가지 자료원에서 추출한 부패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부패 수준이 고려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해외 이주 근로자 수가 많으며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은 이타적 동기의 성격이 강함을 방증해준다. 소득 수준과 금융시장 발전 정도는 해외 근로자 송금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송금 유입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그 리고 실업률 수준이 낮을수록 송금 유입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정책적 관심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 근로자 송금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패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선행조건이 충족될 때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경제적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주제어: 부패 지수, 부패 수준, 해외 송금, 부패 수준과 해외 송금의 상관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2

투고 일자: 2012. 11. 14. 심사 및 수정 일자: 2013. 2. 19. 게재 확정 일자: 2013. 4. 24.

\* 제1저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e-mail: jhcho@woorifg.com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e-mail: ecothk@mju.ac.kr

## I. 서론

세계은행의 보고(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 Book, 2011)에 의하면 2010년 전 세계 해외 이주자 수는 2억 1,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0년 해외 이주자들의 해외송금 규모는 4,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송금 유입액이 3,07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 수준은 다른 해외자본 유입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개발도상국이 받는 대외원조 금액의 2배를 넘고 개발도상국으로의 3,59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거의 대등한 규모에 이른다.

개별 국가로 살펴보면 해외송금의 유입액 기준으로는 인도가 약 550억 달러, 중국은 510억 달러, 멕시코 226억 달러, 필리핀 213억 달러, 방글라데시 111억 달러 순으로 유입규모가 클 것으로 세계은행은 전망했다(전계서). 그러나 2009년 기준 GDP 대비 해외송금 규모를 살펴보면 타지키스탄이 35.1%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해외송금은 한편으로는 해외 이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입 규모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와 중국 등 중소득 국가에서 그 절대적 규모가 커진 바와 같이 경제규모의 증대와 연관된 해외송금의 변화가 국제적 자본 이동의 논의에 유효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테면 해외송금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해외자본 유입보다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이 적고 유무상 대외 원조를 받을 때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필요성도 적어 각국 정책 당국자들은 해외송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정책적 조항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송금은 개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가적으로는 교육, 직업 훈련 등 인적자본 형성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고 빈곤 퇴치나 보건 향상 등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유익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송금 유입액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외송금 유입액 및 GDP 대비 해외송금 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 수준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한 부패 지수(CPI)의 평균치를 해외송금 유입액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인도(7.01), 중국(6.68), 멕시코(6.62), 필리핀(7.29)의 부패 지수가 전체 평균치인 6.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키스탄(7.96), 통가(7.48), 레소토(6.68), 몰도바(7.24)의 부패 지수도 평균치 보다 높

아서 GDP 대비 해외송금 유입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봐도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또한 소득대상 국가별 부패 수준과 해외송금,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패 수준은 감소하지만 해외송금은 줄어들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sup>2)</sup>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 보면 비록 부패 수준은 개별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패 수준과 해외송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등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보다는 해외송금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투명한 정책 집행, 그리고 부패로 인한 정부 정책의 자의성 증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선결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1> 국가 소득별 부패 수준, 해외송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

1996~2010년 평균	Corruption Level	Remittances (% of GDP)	FDI (% of GDP)
Low income country	7.6	4.9	3.4
Middle income country	6.7	5.5	4.9
High income country	3.1	1.1	12.0

주: 1) 부패 수준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CPI 지수를 이용하였고 분석의 편의를 위해 지수 값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높도록 조정하였다.

2) 소득기준은 세계은행의 소득분류 기준을 따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목적은 부패 수준에 따라 해외송금 중에서 특히 해외 근로자 송금 규모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sup>3)</sup> 즉 부패 수준이 상대적으

1)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공공부문에서 인지된 부패 수준을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산정하여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정하고 있다. 0에서 10까지 지수 값을 갖는 CPI는 가장 덜 부패할수록 1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지수 값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도록 조정되었다. 즉 10에 가까울수록 가장 부패한 정도를 나타낸다. 지수조정 방식은 III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2) 세계은행은 2010년 1인당 GNI가 12,276 달러 이상이면 고소득 국가, 1,006~12,275 달러이면 중소득 국가, 1,005 달러 이하이면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3)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송금은 크게 해외 근로자 송금(workers' remittances), 피용자보수

로 높을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소득 국가에서는 부패 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직접투자 보다는 해외 근로자 송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패와 해외 근로자 송금 사이의 상관성 규명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부패 수준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미만의 단기 이주자의 피용자보수와 이전소득을 제외한 해외 근로자 송금의 영향력을 고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부패 수준이 보다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송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분석모형을 설명한 다음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과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은 제Ⅴ장에 집약하였다.

## Ⅱ. 선행 연구

개발도상국의 부패 수준과 경제성장, 자본 이동 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패 수준과 제도적 체계 및 자본 이동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이며, 세 번째는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결정요소를 분석한 연구이다.

먼저, Shleifer and Vishny(1993)는 정부 정책의 제도적 체계와 구조 및 정치 과정에 따라 부패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지를 통해 부패 척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부패 통제력이 약할 때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과 정부 기관의 비밀 유지가 세금보다 더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와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

(compensation of employees), 그리고 이주자 이전소득(migrants' transfer)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IMF의 Balance of Payment 계정 상 1년 미만의 단기 이주자의 경우의 노동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해외 근로자 송금과 해외송금이 같은 성격을 공유하고 있고 선행 연구도 이 둘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Catrinescu et al., 2009; Rao and Hassan, 2011).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부패 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경제·사회적 영역에서의 경쟁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부패 수준과 파생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서 정부의 개방성을 높이고 비밀유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Smarzynska and Wei (2000)에 따르면, 부패 정도가 심한 국가일수록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보호 수준이 낮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정 소송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또한 사업 유형도 단독법인이 아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 형태(joint ventures)로 진출하고자 하는 동기도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 정도가 심한 국가에서 현지법인과 합작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때 외국기업의 특정기술 누출현상(leakage of technological know-how)을 염려하여 현지 법인과 합작 형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 지역에 투자를 이미 실행하였거나 계획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각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lken and Pande (2011)는 부패 정도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고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에 적응하거나 대응하게 되므로, 반부패 장기 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반부패 효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부패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éon and Sekkat (2005)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grease the wheels hypothesis)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sand the wheels hypothesis)에 대하여 어느 쪽 가설이 타당한지를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는 부패가 거버넌스(governance)가 낮은 국가에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부패가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추가 비용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1970~80년 63~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의 부패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보완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유발하여 경제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Wei(1997)는 1991년 14개 투자국과 41개 투자유치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고 '1997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나타난 부패로 인한 자의성 척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패로 인한 자의성의 증대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 정도도 큰 것으로 논증하였다. 이를테면 부패 수준이 낮은 싱가포르에서 멕시코의 부패 수준 정도로 정부 정책의 자의성이 증대된다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고 그 효과는 32%p의 세금 인상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Wei(2000b)는 Wei(1997)를 확장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느끼는 투자 유치국의 부패 수준이 세금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2개 외국인 직접 투자국과 45개 투자유치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투자유치국의 부패 수준은 외국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2000a)는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해외직접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장기 투자 성격을 갖는 외국인직접투자 보다는 단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투자와 은행차입이 해외자본 유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단 한번 투자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매몰비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패한 국가에서의 협상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Wei and Wu(2002)에 따르면, Wei(2000a)와 마찬가지로,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감소시키고 은행 차입 등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해외 차입에 의존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기업은 자산의 국유화, 디폴트 선언 등의 위험 요인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차입 구성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제적 기초여건(fundamental)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사건과 뉴스는 해외 차입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져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 근로자 송금이 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에 관한 연구로써 Catrinescu et al. (2009)은 해외 근로자 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전한 경제정책과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의 장기적 경제성장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도가 확고히 성립되어 있는 국가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이 투자를 위한 재원과 보다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용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근로자 송금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근로자 송금이 효율적인 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Giuliano and Ruiz-Arranz (2009)는 해외 근로자 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금융시장 발달에 의존하는지를 연구하였다.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1975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시장의 발달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근로자 송금이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위한 가용자금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유동성 제약을 극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Chami et al. (2005)은 경제성장과 해외송금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해외송금이 유입되는 국가에서 노동소득의 대체소득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고찰하였다. 경제성장과 해외송금의 음(-)의 상관관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대비되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결정요소에 대한 연구로 Sayan (2006)은 1976~2003년 12개 개발도상국의 해외 근로자 송금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 근로자 송금이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s) 또는 소비의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 동기 때문에 경기 역행적 성격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sup>4)</sup> 결과적으로, 해외 근로자 송금의 동기는 다양하며 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경기 역행적 성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논증했다. 분석 대상국에 따라 해외 근로자 송금이 경기 순행적(pro-cyclical) 또는 경기와 아무런 관련성도 보이지 않는(acyclical) 행태도 발견할 수 있었다.

Adams (2008)는 1인당 GDP와 해외송금 사이에는 역의 U(inverted U shape)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해외송금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오히려 해외송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

4) 해외 근로자 송금은 송금동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s)와 투자 동기(self-interested motives)이다. 선행 연구들은 해외 근로자 송금의 동기가 어느 것에 더 우선하는지 연구하였지만, Pozo (2005)는 해외 근로자 송금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투자 동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사실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보다는 중소득 국가에서의 해외송금 유입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Lin (2011)은 통가에서 낮은 수준의 실질 GDP와 고용률은 해외송금 유입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나 해외송금의 실질환율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Gupta (2005)는 인도의 해외송금 유입의 증가는 해외 이주민의 증가와 그들의 소득 증가로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해외송금 유입 규모가 증가했음을 보임으로써 인도의 해외 송금이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Alper and Neyapti (2006)는 터키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 송금 유입을 분석하였는데 장기적으로는 해외 송금의 투자적 동기가 주요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 평활화(consumption-smoothing) 동기가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경제적 고찰은 제도적 체계, 경제성장, 외국인직접투자 등과의 상관성 분석에 집중되었으며, 해외송금에 관한 연구도 주로 경제성장에 대한 파급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또한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경제적 요인만을 고찰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고려와 분석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부패 수준과 해외송금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Ⅲ. 자료 설명과 분석 모형

#### 1. 자료 설명

종속변수는 GDP 대비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REMIT/GDP)이고 독립변수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국가의 1인당 GDP, GDP 대비 M2, 경제성장률, 실업률, 미국 달러 대비 환율 수준,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부패 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시간 추세에 따른 변동을 제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자료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 국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총 154개국인데 인도와 중국 등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의 규모가 큰 국가뿐만 아니라 유입액이 적은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해

의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큰 국가에서 관찰되는 특징으로서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큰 국가로 표본을 한정한다면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표본 국가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국의 GDP 대비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 1인당 GDP, GDP 대비 M2, 경제성장률, 실업률, 미국 달러 대비 환율 수준, 그리고 인플레이션 변수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에서 추출하였다.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부패 지수는 다음의 두 가지 자료원에서 추출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행하는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로 0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지수 값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세계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지수로서, 하위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Control of Corruption 지수이다. Control of Corruption 지수는 사적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공권력의 행사 정도를 나타내고 -2.5에서 2.5사이의 범위에서 지수 값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따라서 두 가지 자료원에서 추출된 부패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세계은행의 Control of Corruption 지수인데, 두 지수는 모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패 인식도 조사를 통해 산출된 것이다. 어느 한 지수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지수 선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지수를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일치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CPI와 Control of Corruption 지수는 지수 값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고 부패에 대한 통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지수 값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고 부패에 대한 통제가 약하여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을 반영하도록 Wei(2000a)의 연구 방법을 따라 다음과 같이 지수 값을 조정하였다. 즉, CPI는 10의 범위를 갖고 Control of Corruption 지수는 5의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 식 (1)과 (2)와 같이 총 범위에서 각국이 갖는 부패 지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CC_i = 5 - (\text{Control of Corruption}_i) \quad (1)$$

5) Wei(2000a)의 연구에서 제시된 부패 지수는 표본국가가 한정되어 있어서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 자료원의 부패 지수만을 이용하였다.

$$CPI_i = 10 - (Corruption\ Perception\ Index_i) \tag{2}$$

한 국가의 부패정도는 시간추세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제도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고려한 변수는 모두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아래 <표 2>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기초 통계량이다.

<표 2> 기초 통계량

	Obs.	Mean	Std. Dev.	Min	Max
Remit/GDP (% of GDP)	154	4.03	6.33	0.01	46.21
PGDP (current US\$)	154	9,470.28	13,271.70	174.90	71,754.67
M2/GDP (% of GDP)	154	62.82	61.70	8.87	598.19
GDPR (annual %)	154	4.23	2.40	-2.23	14.29
UNEMP (% of total labor force)	154	9.94	8.36	0.60	59.50
EXR (LCU per US\$)	154	661.64	2,331.39	0.30	18,128.14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154	8.95	19.96	-0.07	228.73
CC	154	4.92	0.97	2.56	6.60
CPI	150	5.77	2.07	0.44	8.30

주: 1) 1996~2010년 평균.  
2) 부패 수준은 지수 값이 클수록 부패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2. 분석모형

부패 수준이 해외 근로자 송금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관한 결정 모형을 따르되 부패 수준이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패 수준이 심각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 근로자 송금과 부패 수준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log(REMIT/GDP_i) = & \beta_0 + \beta_1 \log(PGDP_i) + \beta_2 [\log(PGDP_i)]^2 \\
& + \beta_3 \log(M2/GDP_i) + \beta_4 (GDPR_i) + \beta_5 \log(UNEMP_i) \\
& + \beta_6 \log(EXR_i) + \beta_7 (INFL_i) + \beta_8 (CORR_i) + \epsilon_i
\end{aligned} \quad (3)$$

위 회귀식에서 하첨자  $i$ 는 표본의 크기인 154개 국가를 나타낸다. 종속변수  $(REMIT/GDP)$ 는 GDP 대비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을 의미하고 독립변수로는 각각 1인당 GDP( $PGDP$ ), GDP 대비 통화지표인 M2( $M2/GDP$ ), 경제성장률( $GDPR$ ),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실업률( $UNEMP$ ), 미국달러 대비 환율 수준( $EXR$ ), 인플레이션율( $INF$ ), 그리고 두 가지 자료원에서 추출한 부패 지수( $CORR$ )를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log$ 는 자연로그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볼 때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규모의 결정요인으로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소득수준,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식 (3)에서는 이들 변수를 기본적으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실질 경제성장률, 실업률, 그리고 각국의 환율과 인플레이션 변수를 모형에 고려하였다.

경제규모의 증대와 연관된 해외송금의 변화가 유효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패수준이 높고 또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노동자가 많은 경우 부패 지수와 해외 근로자 송금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국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되 중소득 국가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규모와 1인당 GDP 사이에 역의 U(inverted U shape)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처럼 각국의 1인당 GDP 변수의 제곱항을 포함하였다(Adams, 2008).

금융시장 발전의 대리변수인  $M2/GDP$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이 생산적으로 사용될 기회와 높은 기대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된 금융시장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M2/GDP$  계수의 부호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Giuliano and Ruiz-Arranz(2009) 연구에서는 해외 근로자 송금은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을 극복할 수 있

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 규모가 클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경우  $M2/GDP$ 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M2/GDP$  변수를 금융시장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해외 근로자 송금의 유입 동기는 크게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s)와 투자적 동기(self-interested 또는 investment motives)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근로자 송금의 일반적 성격으로 간주되는 이타적 동기의 존재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서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국가의 실질 경제성장률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실질 경제성장률 변수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경기가 좋아질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경기 상황이 좋아질수록 투자로 인한 자본 이득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해외 근로자 송금의 투자적 동기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자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실질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해외 근로자 송금의 이타적 동기 때문에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증가할 것이므로 해외 근로자 송금과 실질 경제성장률 변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sup>6)</sup>

실업률 변수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경제 상황이 양호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 근로자 송금이 투자를 위한 재원과 가용자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업률 변수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외 근로자 송금의 이타적 동기로 인하여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규모가 클 가능성 때문에 양(+)의 부호를 가질 수도 있다.

미국 달러 대비 각국의 자국 통화의 환율 변수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환율이 절하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송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결정요소로서의 환율 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근로자 송금 결정에 대해 유입국 경제주체의 소비 평활화(consumption-smoothing)가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면 인플레이션 변수의 계수 값은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은 경우

6) 선행연구에서는 어느 쪽 동기가 우세한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외 근로자 송금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으로 인한 소비 활성화 및 평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는 각국의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부패 지수로서, 상술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출처에서 발표된 부패 지수를 이용하여 부패의 해외 근로자 송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가 해외 근로자 송금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 근로자 송금의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Méon and Sekkat (2005)의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정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해외 근로자 송금의 이타적 동기가 투자적 동기보다 강하다면 부패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증가할 것이다. 이를테면 부패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어 공정한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므로 해외 이주의 유인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외 근로자 송금의 투자적 동기가 강하다면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부패 수준이 심각할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반된 가설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기본적인 변수에 부패 수준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횡단면 분석 자료의 경우 오차항의 동분산 가정이 위반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s)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GDP 대비 해외 근로자 송금이 0인 경우에 자연로그 값을 취하면 종속변수가 누락되어 자유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GDP 대비 해외 근로자 송금액에 1을 더한 값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회귀식 (3)을 활용하여 전체 표본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부패 수준에 따른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한다. 또한 해외 근로자 송금을 통해서 개별 가계의 가치분 소득 증대 및 인적자본 형성 그리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표본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하여 부패수준이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IV. 실증분석 결과

부패 수준에 따른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대한 추정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a)열과 (b)열은 1인당 GDP의 제곱항을 제외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c)열과 (d)열은 선행연구와 같이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1인당 GDP 변수의 제곱항을 포함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a)열과 (b)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1인당 GDP 변수는 1% 유의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c)열과 (d)열의 1인당 GDP 변수의 제곱항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1인당 GDP 변수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GDP 변수의 제곱항 변수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각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GDP 대비 M2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근로자 송금의 이타적 동기보다는 투자적 동기가 더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업률 변수는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실업률이 높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 경제성장률 변수의 부호가 양(+)의 값을 갖는 이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각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각국의 환율 수준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고 인플레이션 수준은 부패 지수로서 CC 변수가 모형에 포함된 경우에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였다.

부패 수준과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부패 수준과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수준과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의

양(+)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부패 수준이 심각할수록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공정한 국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해외 이주의 유인력 증가로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3〉 부패 수준과 해외 근로자 송금 추정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REMIT/GDP)$ , averaged over 1996-2010				
	(a)	(b)	(c)	(d)
Corruption Index	CC	CPI	CC	CPI
$\log(PGDP)$	0.690*** (0.224)	0.807*** (0.226)	3.944 (2.696)	2.226 (2.791)
$[\log(PGDP)]^2$			-0.255 (0.211)	-0.112 (0.219)
$\log(M2/GDP)$	1.398*** (0.304)	1.179*** (0.305)	1.360*** (0.305)	1.170*** (0.307)
GDPR	0.117*** (0.040)	0.150*** (0.037)	0.136*** (0.043)	0.157*** (0.040)
$\log(UNEMP)$	-0.420*** (0.152)	-0.417*** (0.150)	-0.394** (0.153)	-0.405*** (0.152)
$\log(EXR)$	-0.021 (0.068)	-0.068 (0.069)	-0.041 (0.070)	-0.074 (0.071)
INFL	-0.009* (0.005)	-0.004 (0.004)	-0.009* (0.005)	-0.004 (0.004)
CORR	1.233*** (0.337)	1.059*** (0.237)	1.167*** (0.341)	1.023*** (0.249)
Constant	-14.907*** (2.427)	-15.685*** (2.301)	-24.676*** (8.422)	-19.856** (8.496)
Obs.	154	150	154	150
R <sup>2</sup>	0.318	0.348	0.325	0.349

주: ( ) 은 표준오차를 의미하고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개발도상국으로 표본을 한정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sup>7)</sup> 분석 대상 개발도상국은 총 109개국으로 앞의 추정과 마찬가지로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자료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고 부패 지수는 세계은행의 Control of

7) 추정에 사용된 개발도상국 목록은 〈부록 표 2〉를 참조.

Corruption (CC)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를 사용하였다. <표 4>의 (e) 와 (f) 열은 1인당 GDP 변수만을 포함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g) 와 (h) 열은 1인당 GDP 변수의 제곱항이 포함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부패 수준과 해외 근로자 송금 추정 결과(개발도상국의 경우)

Dependent variable: $\log(REMIT/GDP)$ , averaged over 1996-2010				
	(e)	(f)	(g)	(h)
Corruption Index	CC	CPI	CC	CPI
$\log(PGDP)$	0.708** (0.272)	0.817*** (0.273)	3.921 (3.601)	2.112 (3.691)
$[\log(PGDP)]^2$			-0.253 (0.283)	-0.102 (0.291)
$\log(M2/GDP)$	1.396*** (0.365)	1.179*** (0.366)	1.360*** (0.367)	1.170*** (0.368)
GDPR	0.118** (0.048)	0.150*** (0.044)	0.136** (0.052)	0.157*** (0.048)
$\log(UNEMP)$	-0.421** (0.182)	-0.418** (0.180)	-0.395** (0.185)	-0.407** (0.183)
$\log(EXR)$	-0.022 (0.082)	-0.068 (0.083)	-0.041 (0.085)	-0.074 (0.085)
INFL	-0.009 (0.006)	-0.004 (0.005)	-0.009 (0.006)	-0.004 (0.005)
CORR	1.221*** (0.406)	1.055*** (0.287)	1.170*** (0.411)	1.028*** (0.299)
Constant	-14.939*** (2.916)	-15.711*** (2.757)	-24.619** (11.206)	-19.541* (11.230)
Obs.	109	107	109	107
R <sup>2</sup>	0.320	0.348	0.325	0.349

주: ( ) 은 표준오차를 의미하고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e) 열과 (f) 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1인당 GDP 변수의 계수는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어 소득 수준과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 열과 (h) 열의 1인당 GDP 변수의 제곱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해외 근로

로자 송금 유입 규모와 1인당 GDP 사이에 역의 U (inverted U shape) 관계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GDP 대비 M2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질 경제성장률 변수는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경기가 좋아질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경기 상황이 좋아질수록 투자로 인한 자본 이득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실업률 변수는 5% 유의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은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과 관련하여서는 해외 송금의 투자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환율과 인플레이션 수준 변수는 각각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부패 수준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 수준의 증가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해외 이주의 유인력이 높아지고 또한 해외 근로자 송금의 이타적 동기로 인해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각국의 소득수준,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경제성장률, 실업률, 환율,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패 수준을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의 결정요소로 고려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의 결정요소 가운데 부패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부패 수준을 고려하였다. 즉 해외 자본 유입 중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특징으로 부패 수준이 높다는 사실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부패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패 지수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의 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154개국과 이 가운데 109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 수준과 GDP 대비 M2로 측정한 금융시장 발전 정도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국의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금융시장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근로자 송금이 유입되는 국가의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는 모든 추정 방법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GDP의 제곱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실질 경제성장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였고 실업률 변수는 음(-)의 값을 나타내어 실질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리고 실업률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 근로자 송금과 거시적 경제여건의 상관성에 대해 이타적 동기보다는 투자적 동기의 영향력이 우세함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각국의 환율과 인플레이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본 연구는, 거시적 경제 여건과는 달리, 부패 수준을 고려할 때 해외 근로자 송금의 이타적 동기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부패 수준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 근로자의 송금이 투자적 동기에 의해 유입되기보다는 이타적 동기에 의해 유입되는 정도가 우세함을 나타낸다. 부패 수준이 높아질 경우 투자 여건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은 커지고 가족 생계유지와 경제력 보전의 필요성은 증대되기 때문이다. 부패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경제적 권리의 불공정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득 감소 요인이 커지게 되고 소득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노동력의 해외 유출이 증대된다. 이타적 동기의 해외 송금 유입액의 증가는 이러한 해외 이주자 증가의 결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증감의 경우와는 달리 부패 수준과 해외 근로자 송금의 상관성은 투자적 동기보다 이타적 동기가 우세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Pozo (2005)의 연구 결과와 같이, 해외 근로자 송금의 다양한 결정 요소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다면 투자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가 혼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 요인으로 부패 수준을 설정하고 해외 근로자 송금과의

상관성을 별도로 분석해 보면 해외 근로자 송금의 동기를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많은 국가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갖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이 경제주체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인적자본 형성과 투자를 위한 가용자금 수단으로 기능하여 경제발전에 유용한 자금 원천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 투명성 제고 등 외국인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지만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을 위해서는 그러한 유인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약하다. 하지만 투자 여건의 개선이 지체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을 통한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실질 환율 절상, 노동력 공급 또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 도덕적 해이, 정부의 제도적 보완 노력 미비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근로자 송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수 연구들은 건전한 정부 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패로 인한 비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경제적 이득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 수준과 해외 근로자 송금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경제적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행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의 운영, 해외자본 유치와 투자적 동기의 해외 송금 유입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혁신 등 반(反)부패의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함으로써 해외 근로자 송금이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액이 큰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을 통한 자본 유입을 증대시키려고 부패 수준을 높일 수는 없다. 인과성에 대한 추론의 검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지를 종합해 보면, 해외 근로자 송금의 이타적 동기뿐만 아니라 투자적 동기를 제고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부패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서 부패 수준을 낮추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해외 근로자 송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력모형을 이용하고 자료의 패널 구조를 통한 시간적 변동요인을 고려한다면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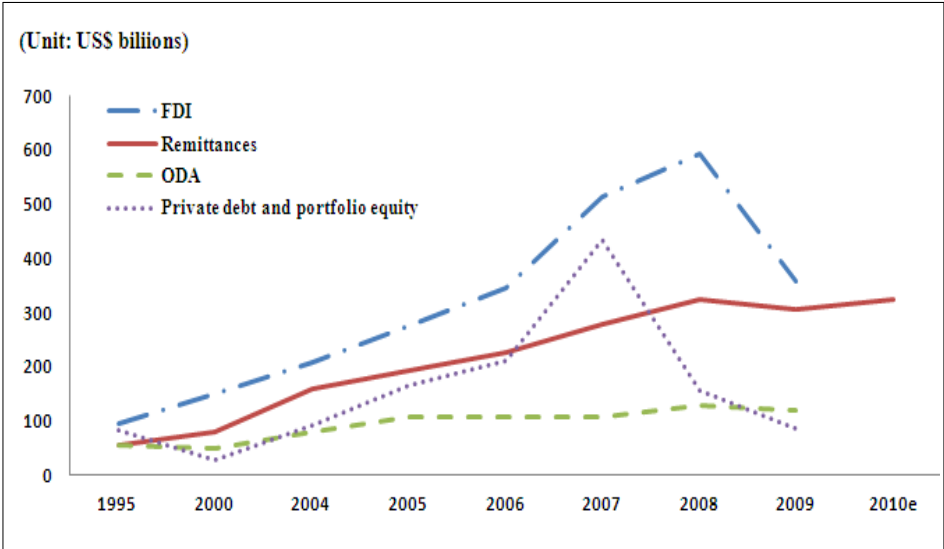
리나 이를 위해서는 해외 근로자 송금의 양국간 자료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계은행의 자료는 특정 국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료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 참 고 문 헌

1. Adams Jr, R. H.,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Financial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Remittance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583, 2008.
2. Alper, A. M. and B. Neyapti, "Determinants of Workers' Remittances: Turkish Evidence from High-Frequency Data,"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4, No. 5, 2006, pp. 91-100.
3. Catrinescu, N., M. Leon-Ledesma, M. Piracha, and B. Quillin, "Remittances,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World Development*, Vol. 37, No. 1, 2009, pp. 81-92.
4. Chami, R., C. Fullenkamp, and S. Jahjah, "Are Immigrant Remittance Flows a Source of Capital for Development?" *IMF Staff Papers*, Vol. 52, No. 1, 2005, pp. 55-81.
5. Giuliano, P. and M. Ruiz-Arranz, "Remittances, Financial Development,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90, No. 1, 2009, pp. 144-152.
6. Gupta, P.,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Remittances: Evidence from India," *IMF Working Paper*, WP/05/224, 2005.
7. Lin, H. H., "Determinants of Remittances: Evidence from Tonga," *IMF Working Paper*, WP/11/18, 2011.
8. Méon, P.-G. and K. Sekkat, "Does Corruption Grease or Sand the Wheels of Growth?" *Public Choice*, Vol. 122, No. 1-2, 2005, pp. 69-97.
9. Olken, B. A. and R. Pande,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No. 17398, 2011.
10. Pozo, S., *On Remittances and Risk. In Beyond Small Change: Making Migrant Remittances Count*, edited by Donald F. Terry and Steven R. Wilson.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ing Bank, 2005.
11. Rao, B. B. and G. M. Hassan,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Growth Effects of Remittances," *Economic Modelling*, Vol. 28, No. 1-2, 2011, pp. 701-709.
12. Sayan, S., "Business Cycles and Workers' Remittances: How Do Migrant Workers

- Respond to Cyclical Movements of GDP at Home?" *IMF Working Paper* WP/06/52, 2006.
13. Shleifer, A. and R.W. Vishny, "Corrup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8, No. 3, 1993, pp.599-617.
  14. Smarzynska, B.K. and S.-J. Wei, "Corruption and Compos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Level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7969, 2000.
  15. Wei, S.-J., "Why is Corruption So Much More Taxing Than Tax? Arbitrariness Kills," *NBER Working Paper* No. 6255, 1997.
  16. \_\_\_\_\_, "Local Corruption and Global Capital Flow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2, 2000a, pp.303-354.
  17. \_\_\_\_\_,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2, No. 1, 2000b, pp.1-11.
  18. Wei, S.-J. and Y. Wu, "Negative Alchemy? Corruption, Composition of Capital Flows, and Currency Crises," *Preventing Currency Crises in Emerging Marke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p.461-506.
  19. World Bank,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 Book 2011*, 2nd Edition, World Bank, Washington, DC, 2011.

〈부록 그림 1〉 해외 송금과 타 자본유입의 추세



자료: The World Bank (2011),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 book 2011, Second Edition.

〈부록 표 1〉 소득 대상국별 부패 수준, 해외송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상관관계

<i>Low income country</i>	Corruption Level	Remittances (% of GDP)	FDI (% of GDP)
Corruption Level	1.0000		
Remittances (% of GDP)	0.3372	1.0000	
FDI (% of GDP)	-0.0531	0.1010	1.0000
<i>Middle income country</i>	Corruption Level	Remittances (% of GDP)	FDI (% of GDP)
Corruption Level	1.0000		
Remittances (% of GDP)	0.0619	1.0000	
FDI (% of GDP)	-0.0782	0.1138	1.0000
<i>High income country</i>	Corruption Level	Remittances (% of GDP)	FDI (% of GDP)
Corruption Level	1.0000		
Remittances (% of GDP)	0.1816	1.0000	
FDI (% of GDP)	-0.1316	0.1372	1.0000

주: 1) 1996~2010년 평균.  
2) 부패 수준은 CPI 지수를 이용하고 지수 값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 정도가 높도록 조정했다.

〈부록 표 2〉 추정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목록

1 Afghanistan	37 Guyana	73 Niger
2 Albania	38 Haiti	74 Pakistan
3 Algeria	39 Honduras	75 Panama
4 Antigua and Barbuda	40 India	76 Paraguay
5 Argentina	41 Indonesia	77 Peru
6 Armenia	42 Iran, Islamic Rep.	78 Philippines
7 Azerbaijan	43 Iraq	79 Romania
8 Bangladesh	44 Jamaica	80 Russian Federation
9 Belize	45 Jordan	81 Rwanda
10 Benin	46 Kazakhstan	82 Samoa
11 Bhutan	47 Kenya	83 Sao Tome and Principe
12 Bolivia	48 Kosovo	84 Senegal
13 Bosnia and Herzegovina	49 Kyrgyz Republic	85 Serbia
14 Botswana	50 Lao PDR	86 Seychelles
15 Brazil	51 Latvia	87 Sierra Leone
16 Bulgaria	52 Lebanon	88 Solomon Islands
17 Burkina Faso	53 Lesotho	89 South Africa
18 Cambodia	54 Liberia	90 Sri Lanka
19 Cameroon	55 Lithuania	91 St. Kitts and Nevis
20 Chile	56 Macedonia, FYR	92 St. Lucia
21 China	57 Madagascar	93 Suriname
22 Colombia	58 Malawi	94 Swaziland
23 Costa Rica	59 Malaysia	95 Syrian Arab Rep.
24 Cote d'Ivoire	60 Maldives	96 Tanzania
25 Djibouti	61 Mali	97 Thailand
26 Dominica	62 Mauritania	98 Tonga
27 Dominican Republic	63 Mauritius	99 Tunisia
28 Ecuador	64 Mexico	100 Turkey
29 Egypt, Arab Rep.	65 Moldova	101 Uganda
30 El Salvador	66 Mongolia	102 Ukraine
31 Ethiopia	67 Montenegro	103 Uruguay
32 Fiji	68 Morocco	104 Vanuatu
33 Georgia	69 Mozambique	105 Venezuela, RB
34 Ghana	70 Namibia	106 Vietnam
35 Grenada	71 Nepal	107 Yemen, Rep.
36 Guatemala	72 Nicaragua	108 Zambia
		109 Zimbabwe

##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Level and Remittances

Junghwan Cho\* · Taehwang Kim\*\*

### Abstract

The paper analysed an effect of the corruption level on the remittances by using 154 countries' data from 1996 to 2010. By means of the corruption indices drawn from the two sources(CPI, Control of Corruption Index), we found out that the higher corruption level is, the more remittances of the emigrants are increasing. This result supports that the corruption level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ider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into the remittances of the emigrants. These consequences demonstrate also that the remittances by so many emigran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re characterized by the altruistic motivation. Meanwhile the income level and the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level are in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emittances of the emigrants. And we analyse that the amount of the remittances is increasing to the higher real economic growth rate and lower unemployment rate of the recipient countrie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ve a great policy concerns for the remittances, even though the inflow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substantial effect should be limited for the countries of high corrup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economic utility of the inflow of remittances, it needs institutional conditions precedent to control and to monitor the corruption.

**Key Word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orruption level, remittances,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level and remittances

---

*Received: Nov. 14, 2012. Revised: Feb. 19, 2013. Accepted: April 24, 2013.*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34 Geobuk-Ro,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Phone: +82-10-8868-1140, e-mail: jhcho@woorifg.com

\*\* Corresponden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Myongji University, 34 Geobuk-Ro,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Phone: +82-2-300-0768, e-mail: ecothk@mju.ac.kr